

한국과 미국 무용학회지의 질적 연구와 학문적 글쓰기 동향

나와 본 연구자 사이

김수인*

- I. 들어가는 말
- II. 질적 연구 방법
- III.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 IV. 논의 및 종합

- V. 나가는 말: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에 대해
논문을 쓰는 나의 글쓰기에 대한 성찰
- 참고문헌
- Abstract

I. 들어가는 말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무용학회지에 실린 질적 연구와 학문적 글쓰기 동향을 정리하고 비교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동기는 연구와 논문을 단순한 기술적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공간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무용학 연구논문이란 무용이란 현상에 대한 또는 그것을 둘러싼 정보들에 대한 지식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다. 지식은 권력이라는 미셸 푸코의 관점¹⁾을 적용해 볼 때, 무용의 지식 구축 과정 역시 정치적인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을 쓸 것인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선택은 무용 지식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기본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기본 가정에 있어 상반된 철학적 배경에 토대를 두고 있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모든 학문을 방법론으로 양분하는 거대한 두 패러다임이다. 양적 연구의 토대가 되는 실증주의에서는 지식이란 불변성, 보편성, 객관성을 가진 사실 정보이며 그러한 정보는 수량화된 결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²⁾ 반면 질적 연구의 토대가 되는 후기 실증주의에서는 지식의 불변성, 보편성,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객관화는 복잡하고 혼란스런 현실의 축소이자 왜곡이라고 주장하였다.³⁾

* 성균관대학교 강사, algedi4236@gmail.com

1) 빅토리아 D. 알렉산더(2003), 『예술사회학: 순수예술에서 대중예술까지』, 최셋별, 한준, 김은아 (역)(파주: 살림, 2012), p.53 참조.

2) 근대 서양에서 개발된 과학적 객관성의 개념이 무용 지식으로 치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나의 이전 논문 보상-푸이에 노테이션과 17C 서유럽의 보편언어 추구 움직임(2010) 『무용예술학연구』 30에서 논의한바 있다.

3) 티아 데노라(2003), 『아도르노 그 이후: 음악사회학을 다시 생각한다』, 정우진(역)(파주: 한길사, 2012).

후기 실증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포스트 이론들이 실증주의적 연구 방식인 수치 측정과 실험 관찰을 재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20 세기 후반부터 질적인 데이터와 개별 연구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질적 연구 방식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는 특히 인문 사회 분야에서 두드러졌고, 한국의 학계에서도 크게 증가하였다.⁴⁾ 한국의 무용학계에서도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학회지에 출간된 질적 연구의 비율의 변화는 이러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박중길(2004)⁵⁾이 1958년부터 2001년까지 질적 연구를 단 3편만 발견할 수 있었던 반면 본 연구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7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무용학계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양적인 증가가 곧 그 철학적 바탕인 후기실증주의의 근본적 연구 논리의 구현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점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김현정의 논문 문화기술지적 무용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국내 무용학계의 문화기술지적 무용 연구에 대해 논의하면서 “문화기술지적 무용연구를 한다 해도 실증주의적 객관성 틀 안에서 문화기술지를 하나의 연구방법으로써 부수적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진단하였다.⁶⁾ 이는 무용학계 외에 다른 학문 분과의 질적 연구에 대한 논의에서도 발견되는 진단과 유사하다. 조용환은 국내 교육인류학의 질적 연구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람과 사물과 현상의 질을 수량화 이전의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궁구하기보다는 피상적으로 접한 인류학, 현상학, 또는 해석학의 연구방법을 어슬프게[sic] 모방하는 연구를 양산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인식하였다.⁷⁾ 조용환의 진단은 1999년에 나온 것이지만 이 논문의 지적이 2009년 임도빈의 논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⁸⁾ 임도빈은 질적 논문을 표방하나 단순한 연구기법상의 특질로서 수치 데이터가 아닌 정성적 자료를 취하는 질적 연구를 ‘양적인 질적 연구’로 통칭한다.⁹⁾ 이 용어는 연구 논리가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에 근거하지는 않은 채 비-수치화된 자료를 귀납적으로 다루는 연구 기법 때문에 질적 연구로 불리는 유형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예컨대 위 세 학자의 지적을 종합해보면 부분적으로 질적 연구의 양상을 띠지만 근본적인 연구 논리의 패러다임에서 엄밀한 의미의 질적 연구법을 구현하지 못하는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질적 연구법의 불완전한 구현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여러 증상 중 본 논문이 초점을 맞추는 하나는 바로 학문적 글쓰기 양식이다. 학문적 글쓰기 양식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김영천과 주재홍이 지적하듯이, 질적 연구란 곧 글쓰기 작업으로 규정될 만큼, 글쓰기란 그 연구 논리의 패러다임이 구현되는 중요한 지점¹⁰⁾이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 글쓰기와 양적 연구 글쓰기의 사상적 패러다임이 양립할 수 없다는 학계의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확립되었다.¹¹⁾ 김영천과 주재홍의 논의가 본 연구

4) 임도빈(2009),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연구』 15(1), pp.155-187. 조용환(1999a),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1). 박동숙(2008), 커뮤니케이션학에서의 학술논문쓰기: ‘객관적 글쓰기’의 제약, 『인문과 사회』 16(4). 김영천, 주재홍(2010), 질적 연구에서의 글쓰기, 『열린교육연구』 18(1).

5) 박중길(2004), 무용교육의 질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3(4), p.48. 박중길은 1958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에 발표된 주요 학술지인 한국체육학회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무용 관련 학회지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조사한 결과 3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하고 있다. 박중길의 연구는 43년에 이르는 방대한 기간을 아우르고 있고 분야별 분류, 주제별 분류, 방법별 분류를 하고 있어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무용 분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무용 관련 학회지를 분석하였는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

6) 김현정(2010), 문화기술지적 무용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4, p.57.

7) 조용환(1999a), p.103.

8) 임도빈(2009).

9) 앞의 글. p.157.

10) 김영천, 주재홍(2010), pp.155-156.

에 주는 시사점은 학문적 글쓰기가 단지 지식과 정보를 단선적으로 글로 옮겨 적는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작업임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질적 연구의 글쓰기 특징들이 지면상의 이유나 다른 외적 요인 때문에 희생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나는 김영천과 주재홍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무용학 연구 논문 글쓰기가 연구자의 선택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작업임을 지적하고 싶다.

더불어, 질적 연구 논리가 지식과 지식 생산자의 과학적 객관성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의 글쓰기가 연구자, 연구과정, 연구참여자의 특수성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모순되는 지점이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다. 그러한 성찰의 배제는 사실 소위 '과학적' 패러다임과 실증주의적 연구가 중요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테레사 버클랜드(Theresa Buckland)는 현지 조사 이전과 이후, 그리고 현지 조사 동안에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최소화되는 것은 저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주의 연구의 특징이라고 지적한다.¹²⁾ 그러나 후기 실증주의 패러다임에서 연구자는 단 하나의 우월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저자의 주관성을 성찰하고 표현해야만 한다. 그래서 인터뷰당하고 관찰당하는 참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 현지 조사 과정에 대한 성찰, 그리고 글쓰기 행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낼 것이 요구된다.¹³⁾ 버클랜드의 논의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후기 실증주의 패러다임이 실증주의 연구와는 달리 학문적 글쓰기 행위에 대한 성찰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질적 연구의 핵심이 글쓰기이고 그 사상적 패러다임이 글쓰기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면, 질적 연구의 논문 편수가 증가하는 만큼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가 증가하였어야 한다. 한데 실상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가 그만큼 증가하였는가를 살펴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 김영천과 주재홍은 한국의 교육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낼 것인가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¹⁴⁾ 이와 유사하게, 박동숙은 자신의 전공분야인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수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증주의 글쓰기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기에 여러 가지 난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자기고백적 (confessional tales) 서술 방식으로 논의한다.¹⁵⁾ 나는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위의 학자들의 지적이 무용학 분야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다룬 최근의 연구 경향에서 제시하겠지만 질적 연구의 증가만큼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무용학계에서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가 비교적 활발하지 않다는 사실은 미국 무용학계의 경향과의 비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 무용학계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근 25년간 포스트 이론들의 세례를 받아 이전의 전통적 무용학과는 구별되는 '신무용학'(new dance studies) 혹은 '비판적 무용학'(critical dance studies)으로 지칭되는 무용학 경향이 발전하였다.¹⁶⁾ 신무용학 경향은 연구의

11) 김영천, 주재홍(2010), p.162.

12) Theresa J. Buckland (1999), [Re]Constructing Meanings: the Dance Ethnographer as Keeper of the Truth in *Dance in the Field*, Theresa J. Buckland(ed.)(Michigan: Palgrave MacMillan Press LTD), p.196. 무용 문화기술지에 있어 이러한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통은 20세기 유럽 민족학(ethnology)과 민속학(folklore studies)에서 수행되어왔다.

13) Buckland(1999), pp.196-197.

14) 김영천, 주재홍(2010), p.156.

15) 박동숙(2008), pp.116-119.

관심사와 방법론에 있어서만 포스트 이론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용 연구의 글쓰기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장려하였다. 김현정이 분석하고 있듯이 미국 무용학계에서는 포스트 이론들에 근거한 연구 방법과 실험적 글쓰기에 대한 전통이 이미 1990년대부터 구축되어 있었다.¹⁷⁾ 김현정은 신시아 노박(Cynthia J. Novack, 1990), 바바라 브라우닝(Barbara Browning, 1995), 애나 스콧(Anna B. Scott, 1997), 샬리 앤 니스(Sally Ann Ness, 1996)의 논문 및 저서를 분석하면서 각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실험적 글쓰기’가 존재함을 논의한다. 이들 1990년대의 ‘실험적’ 무용학 글쓰기는 200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조기숙은 무용 현상학을 발전시킨 수잔 코젤(Susan Kozel, 2000)과 상호텍스트성 이론으로 무용작품을 분석하는 캐롤 마틴(Carol Martin) 등 탈구조주의 학자들의 논문이 “논문쓰기의 권위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연구를 마치 말을 하듯 쉽게” 쓰고 있다고 소개하였다.¹⁸⁾ 또 다른 예로, 수잔 리 포스터가 편집인인 선집 『세계무용화하기 *Worlding Dance*』(2011)에 실린 8개의 연구 논문들은 새로운 서술 양식을 구축해냄으로써 춤을 종이 위의 글로 번역하는 작업의 복잡성을 인식시킨다. 포스터는 서론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기능하는 중립어(middle term)에 의존하지 않고 경험을 언어로 변환해내는 모델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¹⁹⁾ 이는 무용 연구를 글로 써내는 양식이 다양하게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그 양식은 보편성, 객관성, 중립성을 지상 최대의 가치로 신봉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세계무용화하기』가 미국 무용학의 학문적 글쓰기 경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연구의 주제나 학문 분과를 막론하고 새로운 글쓰기 양식, 즉 실증주의적 글쓰기 양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조적 글쓰기, 실험적 글쓰기, 후기 실증주의적 글쓰기 혹은 ‘질적 글쓰기’²⁰⁾가 주류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²¹⁾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무용학계의 질적 연구 및 그 사상적 토대인 포스트 이론들에 대한 관심 증가라는 공통점과 함께 무용학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본 연구가 답을 얻고자하는 연구 문제는 한국과 미국 무용학계의 질적 연구와 학문적 글쓰기가 어떠한 양상을 띠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무용 연구 논문을 쓰는 연구자와 학자들이 앞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살펴

16) Janet O'Shea(2010), *Roots/Routs of Dance Studies in The Routledge Dance Studies Reader 2nd edition*, Alexandra Carter and Janet O'Shea(eds.)(NY: Routledge).

17) 김현정(2010). pp.55-85.

18) 조기숙(2009), 춤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고찰-몸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성찰을 위하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7, p.190.

19) Susan Leigh Foster (2011), *Worlding Dance*(Michigan: Palgrave Macmillan), p.9. 포스터는 단일하고 미리 규정된 형식이 아니라 무용 연구를 글로 쓰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의 각 저자들은 그들이 간 장소, 만난 사람들, 경험한 감정들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들이 단지 질적 연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Worlding Dance*의 8개 연구 논문은 역사학, 철학, 미학, 인류학, 사회학적 연구 방법을 아우른다.

20) 질적 글쓰기라는 용어는 다음의 연구들에서 쓰이는 용어를 적용하였다. 김영철(1999), 질적 연구에 있어서의 글쓰기, 『교육인류학연구』 2(2), 김영진, 주재홍(2010).

21) 본 논문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실증주의적 글쓰기에서 자유로운 형식의 글쓰기를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글쓰기 양식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로는 창조적 글쓰기, 실험적 글쓰기, 후기 실증주의적 글쓰기, 여성적 글쓰기, 포스트모던 글쓰기, 대안적 글쓰기, 질적 글쓰기 등 많은 선택지가 있으며, 각 글의 목적과 학문적 관점에 가장 근접한 용어를 선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지만 이것이 단지 질적 연구에만 국한되는 글쓰기 양식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위에 논의한 것과 같이 글쓰기의 새로운 시도가 단지 질적 연구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포스트 이론들이 받아들여진 무용학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가 급격하게 대두하고 있다. 때문에 ‘질적 글쓰기’나 ‘질적 연구 글쓰기’라는 표현 대신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 무용학계에서 4 개의 학회지와 미국 무용학계에서 3 개의 학회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학회지 선정의 기준은 규모와 인지도 면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양적 연구를 담당하는 곳은 제외하고 현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교육과 기록 분야를 포함하였다. 한국 학회지 4 곳은 한국무용예술학회의 무용예술학연구,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한국무용기록학회지, 한국무용교육학회지이며, 미국 학회지 3곳은 Congress on Research in Dance (CODE)의 *Dance Research Journal* (DRJ), *Dance Chronicle: Studies of Dance and Related Arts* (DC), 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 (NDEO)의 *Journal of Dance Education* (JODE)이다. 미국 무용학계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학회 중 하나인 Society of Dance History Scholars (SDHS)가 간행하는 *Studies in Dance History*는 1988년 처음 간행할 당시에는 학술 저널로서 시작했지만 1994년 이후 단행본 형태의 논문 시리즈로 재정립되어 정기간행물로 볼 수 없으며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석한 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이다. 이 기간 동안 7 개 학회지에 실린 총 논문 837편 중 834편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배제된 3편은 내가 독해할 수 없는 언어인 중국어와 일본어로 쓰인 논문들이며, 이 언어적 문제가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이 된다.

〈표 1〉 분석 학회지 명, 논문편수 (가나다순)

학회지명	총논문편수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299
한국무용교육학회지	95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09
한국무용예술학회지	173
Dance Chronicle	52
Dance Research Journal	52
Journal of Dance Education	57
총계	837

미국 학회지의 경우 ‘논문’으로 표시된 글만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미국 학회지 3곳은 ‘article,’ ‘research article,’ ‘featured article,’ ‘original article’이라고 분류한 글들 외에 ‘editorial note,’ ‘book review,’ ‘archive,’ ‘in practice’ ‘dialogues,’ ‘letters,’ ‘forum’ 등의 범주 하에 더 많은 종류의 글들을 한 권의 논문집에 실고 있다. 그 때문에 한 권의 논문집에 실리는 ‘논문’의 편수는 3-5편 정도로 보통 6-14편 정도가 실리는 한국의 학회지들 보다 적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글쓰기’라는 점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논문’으로 분류된 글에 초점을 맞추어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무용학 연구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인 학회지 논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단행본과 학위논문 등의 다른 연구 형태는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여러 연구 형태 중 학회지 논문에 집중

한 이유는 질적 글쓰기 형태가 학술 논문이라는 틀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행본 서적의 경우 전문 학자들의 심사가 없다는 점에서 학문적 엄격함이 다소 느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때문에 글쓰기의 양식도 개인적 영역을 더 많이 다룰 수 있는 경향이 있다. 학위논문의 경우 한 개인의 결과물로서 저자와 연관된 심사위원들과 비교적 장기간 연구의 과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역시 개인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학회지 논문의 경우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을 심사받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연구자의 여정을 알 수 없다. 또 상황에 따라서 질적 연구나 대안적 글쓰기 형식에 이해가 깊지 않은 심사위원이 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뜻 실험적 시도를 하기 힘든 구조이다. 허용된 지면의 측면에서도 위의 두 경우에는 대개 수십 페이지에서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지면 속에서 분석 결과를 다 제시하고도 비교적 여유 있게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도 풀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학회지 논문의 경우에는 길어도 30페이지 정도의 비교적 한정된 지면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게 되는 상황도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선택과 배제의 과정에는 중요도에 대한 위계적 층위가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학술지 논문은 논문 작성자의 패러다임을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본 논문의 분석이 한국 무용계의 질적 연구 동향과 학문적 글쓰기 양상을 진단해 보는 하나의 단계로서 앞으로 발전 가능한 방향을 가늠하는데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국 무용학계의 연구 주제가 포스트 이론들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던 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이론,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무용 작품과 현장, 전통적 무용학에서 배제되었던 주변적 무용 현상들로 확산되고 확장되고 있는 만큼 무용 연구를 수행하고 글로 써내려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규범에서 확장된 보다 융통성 있는 시각을 허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풍경을 갖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무용학자들 중 미국권의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참고하면 좋을 사항으로 해외의 학문 경향과 분위기를 소개하는 의의를 지닌다.

II. 질적 연구 분석

1. 분석을 위한 범주 및 분류 항목

본 연구의 질적 연구 분석은 질적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한데 그 연구의 대상을 칼로 자른 듯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조용환의 질적 연구의 동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의 연구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는 무엇을 ‘질적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킬지가 생각만큼 분명하거나 간단치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²²⁾ 조용환에 따르면 논문 제목이나 내용 목차에 “질적”, “참여관찰” “현상학적”, “문화 연구”, “사례 연구”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질적 연구로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연구물의 내용 하나 하나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조용환(1999a), p.92.

나는 조용환이 지적인 질적 연구 선정에의 난제에 동감한다. 특히 김영천, 주재홍이 “학문적인 개인적 내러티브” (Scholarly Personal Narrative)라고 부르는 글쓰기 형태는 자기 고백적이고 자서전적인 내러티브로 연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딱히 질적 연구의 특징적 용어들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Journal of Dance Education*의 경우 학회지의 특성상 교수-학습 현장에 대한 경험과 관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은데 참여관찰, 사례 연구, 문화기술지, 현상학 등의 질적 연구에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로 자신의 연구를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구분이 힘들었음을 밝힌다. 그 이유에 있어 질적 연구라는 용어가 광범위한 연구 유형과 접근법을 아우르고 있으며 그 특성상 연구과정과 글쓰기 작업에 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진작²³⁾시키기 때문에 선불리 규정된 틀로 재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는 추론한다. 때문에 나의 분석은 미리 규정된 분류틀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실제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는 현상 그 자체를 존중하고 가능한 한 그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논문의 저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질적 접근법, 질적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자료 분석 및 처리 방법, 타당성 검증 방법, 연구 윤리 규정 및 동의서 처리 방법, 연구과정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 연구물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범주 설정은 연구 영역, 연구 대상 및 연구 참여자, 질적 접근법, 질적 자료 수집방법,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성 검증방법을 분석 범주로 선정한 신혜경의 미국 음악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동향 분석²⁴⁾을 참고하였으나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하였다. 즉, 신혜경이 교육학의 입장에서 연구대상을 분석한 연구 대상 및 참여자 범주를 배제하였고, 질적 연구 글쓰기와 관련된 본 연구의 관심사에 맞게 연구과정에 대한 성찰과 연구 윤리 규정 및 동의서 처리 방법을 추가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는 문화기술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 자문화기술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런 기준에 따라 7개 학회지의 5년간 연구물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 70개의 논문을 선정·분석하였다. 학회지에 따라 구분해보면, *Journal of Dance Education*에서 27편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무용학회논문집에서 12편, 한국무용기록학회지에서 11편, *Dance Research Journal*에서 7편, 무용예술학연구에서 6편, *Dance Chronicle*에서 6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0편 순서로 질적 연구가 수록되었다. 비율로 보면 *Journal of Dance Education*의 질적 연구 비율이 47.3%, *Dance Research Journal* 13.4%, *Dance Chronicle* 11.5%,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0.0%, 대한무용학회논문집 4.0%, 무용예술학연구 3.4%, 한국무용교육학회지 0.0% 순으로 나타났다.

2. 질적 연구 분석 항목

가. 질적 접근법

질적 접근법의 분석 범주에서는 질적 연구 관련 이론서에서 이론적으로 구분해 놓은 분류 항목을 따르는 대신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는 사례연구(case

23) 김영천, 주재홍(2010), pp.162-163.

24) 신혜경(2013), pp.91-117.

study),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 구술사(oral history), 문화기술지 (ethnographic method), 민족지학 (ethnography),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실기 기반연구(practice based research),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mixing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실기와 질적 연구의 혼합(mixing of dance practice and qualitative study), 질적이고 경험적 연구(qualitative and experiential research), 그리고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qualitative method)이 있었다. 이들 연구 접근법에 대한 표현과 용어는 중복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크리사 앵글레브라이트(Krissa Englebright)와 메그 롭슨 마호니(Meg Robson Mahoney)(2012)는 자신들의 연구를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질적 접근법은 한국과 미국의 학회지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자신의 질적 접근법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료 수집과 처리에서 질적 연구법을 수행하는 연구들도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나타났다.

나. 질적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자료 수집 방법과 수집 데이터에는 인터뷰 및 대화, 인공가공물, 연구자 현장조사지, 참여자 반성일지, 연구자 반성 일지가 있었다.

인터뷰 혹은 면담의 경우 연구자들은 자신의 면담 방식을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 열린 면담(open-ended interview), 집중 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 전문가와의 면담(interview with experts), 질문지(questionnaire)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대화의 경우 즉흥적·자발적 대화(spontaneous conversations), 대화로서의 면담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인공가공물의 경우 수업자료 카페와 같은 인터넷 웹사이트 참조, 학생들의 그림(student drawings), 교과과정 프로그램(curricular programme), 수업계획서(syllabi), 평가척도(evaluation rubric), 수업 계획(lesson plan), 사진, 동영상(video)이 포함되었다. 조정희, 조기숙(2012)의 경우 자신의 공연에 대한 한 평론가의 시를 연구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연구자 현장 조사지(field notes)는 참여관찰로 얻어낸 데이터가 포함되는데, 이를 표현한 내용이 여러 가지이다. 연구자들은 참여관찰(participant-observation), 관찰(observation), 참여(participation)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김승일(2010)은 스프래들리(Spradley, 1979, 1980)가 세 단계로 나눈 기술적 관찰(descriptive observation), 집중 관찰(focused observation), 정선 관찰(selective observation)로 구분하였다. 박휴경, 원영신, 조은영(2013)은 체험기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참여자 반성일지(participant reflection)에는 학생무용일기를 사용한 김승일(2010)과 이정화, 이한주(2013)의 학생들의 수업일지가 있으나, 이정화, 이한주(2013)의 경우 이것이 교사가 학생들을 관찰한 일지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일지인지 모호한 면이 있다. 매리언 아담스(Marianne Adams), 카렌 칼드웰(Karen Caldwell), 로리 앳킨스(Laurie Atkins), & 레베카 퀸(Rebecca Quin)(2013)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묘사하도록 하였고, 특히 그들의 몸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성찰적 일지를 쓰도록 하였다. 그 밖에 학생들의 경험을 재현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반성일지와는 약간 다르지만 웬디 올리버(Wendy Oliver)(2011)의 경우 학생들로부터 평가(commentary)를 받아 자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 반성일지(researcher reflection)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포함되었다. 셰리 바(Sherrie Barr)(2013)는 공연 후 반성일지(postperformance reflection)과 성문 일지(written reflection)를 사용하였고, 김승일, 이현경(2010)은 교사의 수업반성일지를, 김승일(2010)은 교사일지를 사용하였다.

위의 세 경우는 연구자 반성일지를 데이터의 일부분으로 사용한 경우인 반면, 연구의 유형에 따라 이것이 전체 연구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 예로 든 연구들은 연구자의 자기 성찰을 그 주요 데이터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 수집 방법을 명시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바바라 파예 스트리트(Barbara Faye Streets)(2011)은 한 댄스 캠프에 참가한 자신의 경험을 적은 일지(journal entry)를 바탕으로 자기 반성적 연구(self-reflection)를 한다. 패트리샤 리액(Patricia Riak)(2011)은 연구자 자신의 역사를 바탕으로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연구가 향수(nostalgia)에 의해 동기화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를 통해 로드 아일랜드의 전통 결혼식 춤에 대해 문화기술지적 재구성(ethnographical reconstruction)을 수행한다. 발레리 프레스톤-던롭(Valerie Preston-Dunlop)과 레슬리-앤 세이어(Lesley-Anne Sayers)(2011) 역시 자신의 개인적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1980년대에 루돌프 라반에 대한 자료 수집활동 경험과 십대 학생으로서 경험했던 즉흥법에서 근육 기억, 즉 muscle memory를 중심으로 무용 재구성(recreation)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하고 있다. 켄 커니글리아(Ken Cerniglia)와 오브리 린치 II(Aubrey Lynch II)(2011)의 경우는 어린 시절의 역사와 뮤지컬 라이온 킹에 출연할 당시의 개인적 기억(personal memory)을 바탕으로 인종적, 극장적, 상업적 권력의 역학을 무대 뒤(backstage)에서 경험한 바를 내부자 입장에서 서술한다. 이와 유사하게, 장지혜, 조기숙(2012), 조정희, 조기숙(2012), 정이와, 조기숙(2012)는 실기 기반적 연구(practice based research)라는 연구 유형 하에 연구자 자신의 몸적 체험을 주요 연구 데이터로 취급한다. 연구자 반성 일지가 한국과 미국 학회지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기억, 감정, 변화가 자세하게 묘사되고 학문적 자료로서 처리되는 것은 미국 학회지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차이를 보인다.

다. 질적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연구자들을 자신의 분석 방법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냈다. 분석 방법의 유형은 나예 김(Na-ye Kim)(2013)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phenomenological method for data analysis), 앤-토마스 모펫(Ann-Thomas Moffett)(2012)의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 메레디스 심스(Meredith Sims) & 헤더 어윈(Heather Erwin)(2012)의 문서 분석(document analysis), 카렌 E. 본드(Karen E. Bond)(2010)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송혜순(2012)의 비판적 담론 분석과 해석학적 관점, 이정연(2010)의 분석적 귀납방법, 그리고 최재희(2012)와 조영주, 정유영(2012)의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방법 중 참여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박휴경(2013), 이정화, 이한주(2013), 김승일(2010), 김승일, 김인선(2009)이 유목적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 정문미, 원영신(2013), 김승일(2010), 이정연(2010), 김승일, 김인선(2009)이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을 수행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최재희(2012)는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과 이상적 사례선택(ideal case selection)을 수행하였음을 밝힌다.

자료 처리 방법에는 녹취와 전사(transcription)가 김재은(2012), 송혜순(2012), 조기숙, 차경천(2011), 김승일, 이정현(2010), 김승일(2010), 김승일, 김인선(2009), 박지숙(2009)에서 나타났다.

구체적 자료 분석 방법에는 약호화 하기(coding)와 주제 범주화하기(clustered groups of themes)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조용환에 따르면 약호화 하기, 즉 코딩은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이다.²⁵⁾ 조영주, 정유영(2011), 이정연(2010) 등은 스트로스(Strauss, 1987)가 세 가지로 나눈 코딩의 유형 중 개방 코딩(open coding)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 코딩을 하는 방법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연구물도 있었는데, 앵글레브라이트(Englebright) & 마호니(Mahoney) (2012)와 리즌(Reason) & 레이놀드(Reynolds) (2010)는 Nvivo 9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조용환에 따르면 컴퓨터 코딩은 단순 빈도를 파악하는 수준에서는 유용하지만 의미의 복잡한 뉘앙스를 다루어야 하는 질적 분석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²⁶⁾는 점에서 연구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코딩 이후의 분석 작업의 경우에는 이정화, 이한주(2013), 김승일, 이현경(2012), 김승일(2010)과 김승일, 이현경(2010)이 스프래들리(Spradley, 1979, 1980)의 분류에 따라 영역 분석(domain analysis),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 요인 분석(componential analysis) 중 하나 이상을 따르고 있음을 밝혔다.

라. 연구과정에 대한 성찰 방법

연구과정에 대한 성찰 방법에 대한 분류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과정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내용과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새롭게 발견되는 자신과 연구에 대한 통찰력을 살펴보았다.

우선 현상학적 접근법에서 사용되는 괄호 치기(bracketing) 혹은 판단중지가 사용되었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대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연구 전략인데, 본 분석에서 살펴본 논문들은 괄호 치기 혹은 bracketing을 했다고 진술한 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상술하고 있지 않아 그 내용이 연구 결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아담스, 캘드웰, 앳킨스와 쿨(2013)은 자신들의 주관성과 편견(subjectivities and bias)을 지적하였으며 그 과정으로 연구자들의 배경에 대해 서술하며 연구 과정 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요소에 대해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송혜순(2012)은 자신의 무용계 활동과 교육 현장에의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 중 하나는 연구의 동기에 대한 인식과 서술이다. Morgan(2011)은 자신의 무용 수업 중 학생들이 대중무용을 과제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초기 부정적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연구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힌다. 이와 같은 연구에는 본드(2010), 키스(Kearns) (2010), 콘(Cone)(2009), 스타크(Stark)(2010)가 있다.

그 밖에 연구과정에 대한 성찰로는 아할리아 사트쿠나라트남(Ahalya Satkunaratanam) (2013)의 문화기술지 방법에 대한 성찰, 마리 하딩(Mary Harding)(2013)의 연구 목표를 혼합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 가브리엘 오플린(Gabrielle O'flynn), 조에 프리올(Zoe Pryor) & 토니아 그레이(Tonia Gray)

25) 조용환(1999b),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p.41.

26) 앞의 글. p.42.

(2013)의 최초의 현상 해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성찰, 매튜 리즌(Matthew Reason) & 디 레이 놀드(Dee Reynolds)(2010)의 인터뷰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이 있다. 김승일, 이현경(2012)은 인터뷰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학술 용어 대신 현장의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전은자, 김현정(2010)은 연구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동원하여 ‘피실험자’라는 용어 대신 ‘연구 참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밝힌다.

한국과 미국 학회지 모두에서 연구 과정에 대한 성찰이 나타났으나, 미국의 경우 연구자 자신이 연구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 과정에서 본인이 받은 영향에 대한 성찰이 나타는 점이 특징적이다.

마. 타당성 검증 방법

질적 연구에는 늘 타당성, 신뢰성, 진실성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질적 연구는 대개 소수의 특정한 집단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화와 보편화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고안되어왔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전략으로 12편의 논문에서 활용되었다.²⁷⁾ 그 외에 동료 간의 협의, 참여자 검토(member check), 전문가 검토(peer debriefing) 및 연구의 전 과정을 비교하는 향시비교법이 사용되었다. 연구 진실성과 신뢰성에 대한 고려는 한국과 미국 학회지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한국 학회지 논문들의 경우 여러 방법들 중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서 연구의 타당도를 검증받으려는 시도가 현저하였다.

바. 연구 윤리 규정 및 동의서 처리 방법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의 밀접한 만남, 그들의 일상생활에의 깊숙한 침입, 신뢰와 라포(rapport) 형성, 참여자의 삶의 과정이 노출되는 등의 논점이 관여되기 때문에 연구의 윤리 규정에 대한 인식과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²⁸⁾ 이번 분석에서는 논문에서 이러한 규정에 대한 제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인간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준수해야하는 윤리 강령으로 번역할 수 있는 human subject protocol을 사용한 연구물은 셰리 바(Sherrie Barr)(2013)와 로즈메리 마틴(Rosemary Martin)(2013)의 두 편이다. 이러한 윤리 강령은 대개 소속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검증을 신청하고 통과해야 연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틴(2013)은 소속 대학에서 윤리적 허가(ethical approval)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나예 김(2013)은 간단히 윤리적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밖에 루크 C. 칼릭(Luke C. Kahlich)(2011), 박휴경, 원영신, 조은영(2013), 김재은(2012), 정문미, 원영신(2013), 김승일, 이현경(2010), 김승일(2010), 이정연(2010)이 참여자에게 동의서 또는 동의 및 허가를 얻었음을 밝히고 있다.

참여자의 신원 보호의 측면에서는 가명을 사용하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심스와 어윈(2012)은 가명 사

27) 여기에 해당하는 12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아담스(Adams)(2012), 심스(Sims), 칼드웰(Caldwell), 앳킨스(Atkins) & 퀴(Quin)(2012), 민튼(Minton) & 호프메이스터(Hofmeister)(2010), 홍애령(2011), 박지숙(2009), 박휴경(2013), 이정화, 이한주(2013), 김승일, 이현경(2012), 조기숙, 차경천(2011), 김승일(2010), 차민경(2013), 최재희(2012)가 삼각검증 혹은 다각도 검증이라고 하는 triangulation을 수행하였다고 명시하였다.

28) 질적 연구의 윤리적 문제들에 관련된 영역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윤택림(2013),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홍천: 아르케), pp.179-187.

용을 밝혔고, 마틴(2013)은 참여자에게 직접 가명을 선택하게 하였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 외 일부 논문의 경우 참여자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는 대신 사진 자료를 그대로 논문에 노출하여 참여자의 신원 보호가 미흡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연구 윤리에 대한 고려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윤리 강령 준수가 제도적으로 미국 학회지의 경우 윤리 강령 준수에 대한 검토가 연구 과정 중 필수 요소로 포함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III.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1. 분석 범주와 분류 항목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분석을 위한 범주와 분류 항목을 설정하는 데에는 김영천, 주재홍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영천, 주재홍은 양적 연구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실증주의적 글쓰기에 숨겨져 있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를 설명한 베이저만(Bazerman)(1987)을 소개한다. 첫째 이데올로기는 연구자가 글을 학술지에 게재하려면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글을 써야 하고 그 순서는 1. 제목, 2. 요약, 3. 서론, 4. 연구방법, 5. 결과, 6. 제언, 7. 참고문헌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양식의 글쓰기만이 과학적이고 따라서 올바르다고 주창하며 그 규칙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1. 제 3인칭 관점의 글쓰기, 2. 수학적 모델에 기초한 정확성의 강조, 3. 은유 사용 금지, 4. 표현적 언어 사용금지, 5. 실험적 경험적 증거를 통한 연구결과의 제시, 6. 능동태보다는 수동태의 선호, 7. 자료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의 강조, 8. 비과학적 표현의 연구제목 사용 금지이다.²⁹⁾ 김영천, 주재홍은 크레거(Krieger)(1983), 해러웨이(Haraway)(1988), 리처드슨(Richardson)(1990) 외 다수의 학자들을 인용하며 질적 연구의 글쓰기가 1인칭 시점으로 글쓰기, 은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글쓰기, 감정이입을 고취시키는 표현 사용,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있어서 연구자의 개인적 배경과 관련시키기 등의 특징이 드러나야 한다고 제시한다.³⁰⁾ 이상의 논의에서 연구 제목에서 은유적이고 감정이입을 고취시키는 표현 사용하기, 1인칭 시점의 글쓰기, 연구자의 개인적 배경과 연구 관련시키기라는 3가지 분석 범주를 설정한다.

분석의 대상은 II장에서 다루었던 70편보다 훨씬 더 많은 158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논문 편수의 불일치에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질적 연구 논문과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의 특징이 포함된 논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질적 연구 논문에서 3인칭의 '본 연구자', '필자', 'the author'의 표현이 사용된 경우가 빈번한 한편 질적 연구가 아닌 경우에도 1인칭 대명사 '나', 'I'가 등장하고 연구자의 사적 경험, 감정,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불일치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9) C. Bazerman(1987), Codifying the social scientific style: The APA publication manual as a behavioral rhetoric in *The rhetoric of the human Science: language and argument in scholarship and public affairs*, J. Nelson, A. Megill, and D. McCloskey (ed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p.125-144 (김영천, 주재홍(2010). pp.162-163 재인용).

30) 김영천, 주재홍(2010), p.166.

2. 분석 대상

가. 논문 제목의 유형

앞서 소개한 베이저만(1987)의 논의에도 나타나듯이 논문 제목의 양식도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띠고 있다. 베이저만은 실증주의 글쓰기 스타일이 ‘비과학적 표현의 연구제목’을 금지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금지가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지니는 것은 실증주의적 글쓰기 기법이 아닌 방법이나 표현의 문화는 이러한 글쓰기 스타일을 습득하고 난 후에 적절하지 않은 방식 또는 전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간주하게 하는 세계관을 양산시킨다는 점이다. 김영천, 주재홍(2010)은 이러한 세계관이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표현과 글쓰기 기법에 대해 부정적인 것, 열등한 것, 과학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편견을 야기한다고 제시하였다.³¹⁾ 나는 논문 제목들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연구 제목의 표현 양식이 내포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먼저 전통적으로 ‘과학적’이고 ‘학술적’으로 여겨진 제목 양식을 연구 대상, 주제, 방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으로 설정하고, 이에 반해 은유적 표현이나 설명문이 아닌 형식의 구문이나 문장 형태를 사용한 제목을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의 연구 제목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의 4개 무용학회지에 5년간 실린 676편의 논문 중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의 연구 제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19편으로 2.8%가 해당한다. <표 2>는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의 저자, 년도, 제목을 년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한국 학회지의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제목의 논문 저자, 년도, 논문 제목 (년도 순)

Clare Parfitt (2009)	Cyborg Cinema: (Dis)Embodying Cultural Memory in the Digital Age
조기숙(2009)	주체적인 몸 살아있는 춤
장정윤(2009)	몸과 춤에 대한 새로운 사유
KiHyoung Choi(2009)	A Pedagogy of Spiraling: Envisioning a Pedagogy for Dance in Korean Higher Education
김현주(2009)	그림 속에 갇힌 움직임의 의미- 「반궁예악소」에 기록된 문묘일무의 움직임 분석
박순희(2010)	문화예술교육, 창조적 잠재력을 깨우는 힘
Ok-hee Jeong(2010)	The Babel of Dance Literacy: Reflections on the Heterogeneity of Dance Notations in Mid-twentieth Century North America
Jill Hayes(2010)	Movement, Making and Meaning
조기숙, 차경천(2011)	향상되는 창의성-무용체험이 경영인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omas F. Defrantz(2011)	Theorizing Connectivities: African American Women in Concert Dance
Thomas Kampe(2011)	Recreating Histories: Transdisciplinarity and Transcultural Perspectives on Performance

31) 앞의 글, p.163.

박혜연(2012)	한국무용의 교육내용은 무엇인가?-기능의 차원과 정신의 차원
양은정(2012)	컨텍스트 다시 읽기: 20세기 전반 한국 대중춤의 변천 양상 연구
최의창, 박혜연, 신주경(2012)	껍데기와 알맹이-교육내용으로서 한국무용정신의 구성요소 탐색
Penelope Hanstein(2012)	Having Conversations With Others: Reflections on Dancemaking, Pedagogy, and the Art of Scholarly Inquiry
Mohd Anis Mdnor(2012)	Dance as Culture: Appropriating Ethnochoreology on Dance Research in the Maritime-Malay Societies in Southeast Asia
박혜연(2013)	문화예술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요?-링컨센터 인스티튜트의 교육방법론 탐색
Yatin Lin(2013)	Choreographing Multiple Corporealities in the Sinophone World-A Comparative Study on the Works by Cloud Gate Dance Theatre of Taiwan, City Contemporary Dance Company from Hong Kong, and Shen Wei Dance Arts in New York
Tadashi Uchino(2013)	What about Machines? Performing "J-type" Technology in Japan's Contemporary Performance Culture

이 19편의 논문을 저자의 국적과 사용 언어로 분석해보면, 이 중 한국어로 쓰인 논문은 9편이며 영어로 쓰인 논문이 10편이고, 저자가 한국인이 경우는 11편이며 외국인 저자가 쓴 논문은 8편이다. 한국 학회이지만 한국인이 한국어로 질적 학문적 글쓰기의 제목을 쓴 경우는 9편이어서 전체 676편 중 1.3%이다.

미국 학회지 3곳의 경우 총 161편의 논문 중 84편이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제목을 가지고 있어 52.1%의 비율을 보인다. 84편의 논문 제목을 모두 제시하기에는 지면상의 문제가 있어 <표 3>에서 10편의 사례를 소개한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 제목의 국문 번역을 덧붙인다.

<표 3> 미국 학회지의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제목의 논문 저자, 년도, 논문 제목 (년도순)

Clare Lidbury (2009)	Dear Jane...Affectionately Doris H.: The Friendship of Doris Humphrey and Jane Winearls 제인에게...도리스 H.가 애정을 담아: 도리스 험프리와 제인 위널스의 우정
Jan Van Dyke (2010)	Vanishing: Dance Audiences in the Postmodern Age 사라짐: 포스트모던 시대의 무용 관객
Susan W. Stinson(2010)	Questioning Our Past and Building a Future: Teacher Education in Dance for 21Century 우리의 과거에 대해 질문하고 미래를 건설하기: 21세기를 위한 무용 교사 교육
Gabriele Brandstetter (2010)	Dancing the Animal to Open the Human: For a New Poetics of Locomotion 인간을 열기 위해 동물을 춤추기: 로코모션의 새로운 시학을 위하여
Ilana Morgan (2011)	Empowerment in This Dance? You Love This Dance?: Instructor and Student Together Online 이 춤에서 힘을 얻어? 이 춤을 사랑해?: 강 의자와 학생이 온라인에서 함께
Munjulika Rahman (2011)	Price of Gold and Light: Power and Politics in Hey Ananta Punya 황금과 빛의 값: 헤이 아난타 폰야의 힘과 정치

Luke C. Kahlich (2011)	Dancing Deans: Dance Educators Move into the Executive Ranks 춤추는 학장: 행정 경영직 지위로 이동하는 무용 교육자들
Miriam Giguere (2011)	Dancers for Children, with Children, and by Children: Looking at Recital Dance through a Lens of Children's Culture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리고 아이들에 의한 무용수들: 아동문화의 렌즈를 통해 리사이틀 댄스를 보기
Pauline Brooks & Luke Kahlich(2013)	Dancing Across the Pond: Telematic Pedagogy and Performance 연못을 가로지르며 춤추기: 텔레마티크 교수법과 공연
Juliet McMains & Ben Thomas (2013)	Translating from Pitch to Plie: Music Theory for Dance Scholars and Close Movement Analysis for Music Scholars 음조를 플리에로 번역하기: 무용학자들을 위한 음악 이론과 음악학자들을 위한 움직임 분석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제목들이 전반부에는 은유적이고 감정이입을 고취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콜론을 쓴 다음 보다 설명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은유적인 표현에는 폴린 브룩스(Pauline Brooks) & 루크 칼릭(Luke Kahlich)(2013)의 연못을 가로지르며 춤추기처럼 대서양 양 쪽에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텔레마티크 기술을 사용하여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창작을 하고 공연을 하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감정이입을 고취시키는 표현의 예로는 일라나 물건(Ilana Morgan)(2011)의 이 춤에서 힘을 얻어? 이 춤을 사랑해?처럼 연구자의 혼란과 의구심을 표출하는 수사학적 질문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편지나 시의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연구 제목 등 다양한 형식들이 실증주의적 연구 제목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질적 연구와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제목의 일치여부는 한국에서는 불일치, 미국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국의 경우 박혜연(2013)을 제외하고는 모두 질적 연구가 아니었으며, 박혜연(2013)도 참여관찰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과 내용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아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질적 연구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질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아닌 경우 모두 실증주의적 제목과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제목을 채택하였다. 양쪽의 경우 모두 제목의 유형만으로는 질적 연구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

나. 연구자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

질적 연구와 그 외의 경우 모두 연구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올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연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는가, 그럴 경우 1인칭 대명사 ‘나’, ‘I’ 혹은 ‘우리’, ‘we’ 또는 그 변형인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형태가 쓰이는지 살펴본다. 이번 분석의 대상은 논문의 본문으로 제한하여 살펴봄에 영문초록과 국문초록은 배제하였다.

한국의 학회지의 경우 676편의 논문 중 1인칭 대명사가 쓰인 경우는 28편으로 4.1%의 비율을 보인다.³²⁾ 그 중 한국어로 쓰인 논문은 3편으로 전체 676편 중 0.4%이다. 미국 학회지의 경우 161편의 논문

32) 28편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조정희, 조기숙(2012), 조기숙(2009), Na-Ye Kim(2012), Yatin Lin(2013), Lester Tome(2013), Johannes Birringer(2013), Hyunjung Kim(2013a), Tadashi Uchino(2013), Hyunjung Kim(2013b), KyungHee Kim(2013), SeYong Kim(2012), JaeYong Jung(2012), Penelope Hanstein(2012), Suein Kim(2012), Efrosini Protopapa(2012), Mohd Anis Mdnor(2012), 김경희(2011), Thomas Kampe(2011), Thomas F. Defrantz(2011), Jill Hayes(2010), KiHyoung Choi(2009), Clare Parfitt(2009), Ok Hee Jeong(2013), Ok Hee

중 1인칭 대명사가 쓰인 경우는 84편으로 52.1% 차지한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총 837편의 논문 중 1인칭으로 연구자를 지칭한 논문은 모두 112편이며, 이중 한국어로 쓰인 논문은 3편이다. 한국과 미국 학회지의 경우를 모두 합쳐 한국어 논문에서 1인칭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 본문 내의 연구자 자신에 대한 성찰

본 절에서는 연구의 내용에 포함되는 연구자 자신에 대한 성찰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의 문화적 배경, 과거 경험, 현재 지위, 정체성, 개인적 동기, 기억, 학력, 직업적 경력, 개인적 문제의식, 감정적 반응에 대한 내용이 연구의 과정, 목적, 필요성과 연관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국과 미국 학회를 통틀어 47편에서 연구자 자신의 성찰이 드러났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에서 35편이 나타나 21.7%, 한국에서 12편이 나타나 1.7%의 비율을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9편이 영어 논문이어서 한국 학회지 논문 676편 중 한국어 논문에서 자기 성찰이 나타난 경우는 0.4%다. 연구자 지칭의 표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로 쓰인 논문일 때 연구자의 주관적 요소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지면상 47편을 모두 소개하지 못하지만, 몇몇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마틴(2013)은 연구자이자 교사인 자신의 입장에 대한 성찰을 하며 감정적 반응을 드러낸다. 멜라니 아체토(Melanie Aceto)(2012)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학생으로부터 받았던 영감에 대해 자신의 감정적 묘사와 더불어 서술한다. 물건(2011)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학생들의 반응이 나의 생각과 다른데서 야기한 연구자 자신의 충격과 혼란을 묘사하며 이로부터 연구 문제와 동기, 필요성을 끌어낸다. 스티슨(Stinson)(2010)은 자신이 North Carolina 대학의 교수로서 처한 상황과 무용 교사로 처음 시작했던 경험을 반추하여 교사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스티슨은 자신의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묘사하며 “왜 우리가 여전히 이걸 하고 있지? 이게 우리가 나아가고 싶어 하는 방향인가? 이 선택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라는 현실 밀착형 연구 문제를 던지고 있다. 캠프(Kampe)(2011)는 자신이 독일 태생이며 세계 제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 무용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위해 배제하였던 연구자의 주관적 요소를 연구의 동기, 문제의식, 연구 과정과 면밀히 연관 짓고 학문적 지식이 지식 생산자와 분리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47편 외에 연구자의 자기 성찰이 학문적 개인적 내러티브(scholarly personal narrative)로 제시되었지만 따로 그 데이터의 종류나 수집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에밀리 윌슨 브레너(Emily Wilson Brenner)(2011),³³⁾ 베시 쿠퍼(Betsy Cooper)(2011),³⁴⁾ 엘리자베스 맥퍼슨(Elizabeth Mcpherson)(2011),³⁵⁾ 리안 보위(Rian Bowie) & 크리스티나 쉘 소리아노(Christina

Jeong(2012a), Ok Hee Jeong(2012b), Ok Hee Jeong (2011a), Ok Hee Jeong(2011b), Ok Hee Jeong(2010).

33) E. Brenner(2011), Interacting in the Learning Community: “Build a Ballet”: A Cross-Disciplinary Collaborative Project for Students, *Journal of Dance Education* 11(2).

34) B. Cooper(2011), Embodied Writing: A Tool for Teaching and Learning Danc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1(2).

35) E. Mcpherson(2011), Vitalizing Dance Legacy Through the Use of Labanotation as a Staging Tool, *Journal of Dance Education* 11(1).

Tsoules Soriano)(2011),³⁶⁾ 로렌 W. 킨스(Lauren W. Kearns)(2010),³⁷⁾ 등 *Journal of Dance Education*의 많은 논문들이 여기에 해당하였는데, 연구자들은 자신의 수업, 프로젝트, 교과과정을 디자인하고 진행한 경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특정 상황에 처한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요소를 드러내고 자신의 수업에 대한 연구와 연관시킨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연구들을 범주화하고 분류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명시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이나 연구 접근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묘사적인 내러티브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이러한 연구들이 학술적 논문이 아니라 단순한 경험담이나 일화의 소개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고 추측되었다. 하지만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논문들은 *Journal of Dance Education*의 '논문'(research article) 섹션에 소개된 글들이다. *Journal of Dance Education* 학회지는 '논문' 섹션과 별도로 실기, 실제, 혹은 현장이라고 번역될 수 있을 'In Practice' 섹션을 따로 구획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법에서 위의 글들이 논문으로 구분된 것은 그것들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IV. 논의 및 종합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한국의 학회지 4곳과 미국 학회지 3곳에 수록된 논문 총 873편을 질적 연구 방법과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에 있어서 질적 접근법, 질적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자료 분석 및 처리 방법, 연구과정에 대한 성찰 방법, 타당성 검증 방법, 연구 윤리 규정 및 동의서 처리 방법의 범주로 살펴보고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측면에 있어 논문 제목의 유형, 연구자 지칭의 표현, 연구자의 개인적 성찰의 범주를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질적 접근법에는 사례연구, 현상학적 접근, 구술사, 문화기술지, 민족지학, 자문화기술지, 실기기반 연구의 유형이 나타났다.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은 면담법, 현장관찰노트, 연구자 반성일지, 참여자 반성일지, 인공가공물 등이 활용되었다. 질적 자료 분석 및 처리 방법에는 약호화와 주제 범주 분류하기가 빈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우도 2편 나타났다. 연구과정에 대한 성찰에는 우선 현상학에서 강조하는 괄호 치기(bracketing)가 거론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 밖에 연구 방법, 목표 설정, 데이터 해석, 연구 과정 중 해석의 변화에 대한 성찰이 나타났다. 타당성 검증 방법에는 삼각검증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 전문가 검토, 참여자 검토, 연구 동료 간 검토, 연구 전과정의 검토 등이 나타났다. 연구 윤리 규정 및 동의서 처리 방법에는 소속 기관이 정한 윤리 강령을 심사받은 경우도 있었으나 많지 않았고 대부분 간단히 참여자에게 동의를 얻었다거나 허락을 구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상의 6개의 분류 범주에서 한국과 미국의 학회지는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였으나, 한국의 경우가 연구 절차와 타당성 검증 방법에 꼼꼼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미

36) R. Bowie & C. T. Soriano(2011), Poetic Steps: Fusing African American Poetry and Choreography in Classroom Practic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1(2).

37) L. Kearns(2010), Somatics in Action: How "I Feel Three-Dimensional and Real" Improves Dance Education and Training, *Journal of Dance Education* 10(2).

국의 경우 연구 과정에 대한 성찰이 좀 더 드러났다.

논문 제목의 유형에는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제목이 나타난 경우는 미국의 경우가 52.1%로 2.8%가 나타난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연구자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1인칭 ‘나’ 혹은 ‘I’가 등장한 경우도 미국의 경우가 52.1%로 4.1%의 한국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연구자의 주관적 성찰이 드러난 경우도 미국의 경우가 35편의 21.7%로 12편으로 1.7%를 차지한 한국의 경우보다 많았다. 3 가지 분류 범주에서 모두 미국의 경우가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특징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 방법과 글쓰기 양상의 상관관계는 양국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질적 연구와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와의 일대일 대응적 함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질적 연구가 언제나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고,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논문이 언제나 질적 연구인 것은 아니었다. 양국을 비교해 보자면, 한국의 경우 질적 연구들은 모두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와 불일치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가 질적 연구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외 철학, 역사, 사회학 등의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두루 쓰였다.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양상은 연구 방법과의 관련성보다 사용 언어와의 관련성이 더 높았다. 한국의 학회지에 실린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 무용학계의 주류 경향보다 미국 무용학계의 경향과 더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 저자가 한국어와 영어로 다른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사용 언어의 차이가 연구의 내용에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정 김(Hyunjung Kim) (2013a), 수인 김(Suein Kim)(2012), 옥희 정(Ok Hee Jeong) (2013)의 경우가 그러하다. 왜 사용 언어가 학문적 글쓰기에 상관관계를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은 본 논문의 연구시야에서는 답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V. 나가는 말: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에 대해 논문을 쓰는 나의 글쓰기에 대한 성찰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장을 나는 ‘자기 고백적 글쓰기’ 형태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나의 개인적 삶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과 미국의 무용학계를 경험했고 한국의 무용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지금도 무용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나의 개인적 여정이 본 연구의 동기, 필요성, 방법과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포스트 이론들을 배우고, 이를 적용하여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작 나의 논문을 쓸 때 내가 강의하는 바와 배치되는 방식을 쓴다는 것이 모순적으로 느껴졌다. 사실 연구자의 주관적 요소를 드러내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특히나 한국의 무용계와 같이 좁은 분야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연구자의 개인적 정보가 단순히 흥밋거리가 아니라 연구의 깊이를 더해주고 독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을 아무렇게나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연구의 과정, 필요성, 목적과 연관시키고 명석하게 설명해 내는 지적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질적인 학문적 글쓰

기는 포스트 이론의 영향을 받은 해체, 컨템포러리, 컨버전스 관련 연구를 할 때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다루고 있는 내용과 그 표현 방식이 동일한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둘 때 더욱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나는 나의 또 다른 경험, 즉 영어권 무용 연구들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굳이 질적 연구에 속하는 논문이 아닐 경우라도 연구에 이르게 된 나의 개인적 여정, 나의 정체성, ‘나’라는 1인칭 대명사, 나의 실제 삶에 적용되는 연구의 의의, 연구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2000년대 중반에 시작한 나의 유학 생활은 이미 주류로 자리 잡은 이러한 연구 경향에 의해 크게 영향 받았다. 졸업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무용연구를 계속하는 가운데 그러한 이해는 또 다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함을 알게 되었다. 한국과 영어권 무용학계 모두에서 무용학에 대한 이해를 학습하고 이제 한국에서 무용학 논문을 쓰는 나의 연구법과 글쓰기는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본 연구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이전의 논문에서 그리고 지금의 논문에서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 특징을 적용하려고 하지만 내적·외적 문제로 인해 쉽지가 않다.

조용환은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 한다. “이 글에서 내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차갑게 비평한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에서 나 역시 한 발짝도 벗어나 있지 않다는 고백이다.”³⁸⁾ 그와 같은 한국 질적 연구의 선구자가 겸손하게 고백한 것을 보고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깨달았다. 위에서 분석한 미국 무용학계와 한국 무용학계에서 차이가 나는 지점이 바로 나의 모순점이고 다중성이며 딜레마라는 사실이다.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더욱 필요한 때임을 절감한다.

38) 조용환(1999a), pp.113-114.

■ 참고문헌

- 데노라, T.(2003). 『아도르노 그 이후 : 음악사회학을 다시 생각한다』. 정우진(역). 파주: 한길사. 2012.
- 알렉산더, 빅토리아 D.(2003). 『예술사회학: 순수예술에서 대중예술까지』. 최셋별, 한준, 김은아(역). 파주: 살림. 2012.
- 윤택림(2013).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홍천: 아르케.
- Buckland, Theresa J.(1999). *[Re]Constructing Meanings: the Dance Ethnographer as Keeper of the Truth in Dance in the Field*, Theresa J. Buckland(ed.). Michigan: Palgrave MacMillan Press LTD.
- Foster, Susan Leigh (2011). *Worlding Dance*. Michigan: Palgrave Macmillan.
- O'Shea, J. (2010). Roots/Routs of Dance Studies in *The Routledge Dance Studies Reader* 2nd edition, Alexandra Carter and Janet O'Shea(eds). NY: Routledge.
- 김경희(2011). 마리우스 프티빠의 「라 바야데르」에서 재현된 힌두적 특성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8: 1-17.
- 김수인(2010). 보상-퓨이에 노테이션과 17C 서유럽의 보편언어 추구 움직임. 『무용예술학연구』, 30: 1-25.
- 김승일(2010).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문화적응과 무용수업적응효과.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3: 1-18.
- 김승일, 이현경(2010). 발달장애 청소년의 무용수업효과 사례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4: 37-54.
- 김영천, 주재홍(2010). 질적 연구에서의 글쓰기. 『열린교육연구』, 18(1): 155-183.
- 김영철(1999). 질적 연구에 있어서의 글쓰기. 『교육인류학연구』, 2(2): 71-96.
- 김재은(2012). 생애주기를 통한 직업무용수 삶의 분석.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6): 56-74.
- 김현정(2010). 문화기술지적 무용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4: 55-85.
- 박동숙(2008). 커뮤니케이션학에서의 학술논문쓰기: '객관적 글쓰기'들의 제약. 『언론과 사회』, 16(4): 115-141.
- 박중길(2004). 무용교육의 질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3(4): 745-759.
- 박혜연(2013). 문화예술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요?-링컨센터 인스티튜트의 교육방법론 탐색.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9: 79-99.
- 박휴경, 원영신, 조은영(2013). 직장여성의 바디-컨디셔닝 프로그램 참여 경험.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4): 89-104.
- 송혜순(2012).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바라 본 관점의 무용교육.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6): 135-154.
- 신혜경(2013). 미국 음악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동향 분석. 『음악교육연구』, 42(2): 91-117.
- 이정연(2010). 아동의 무용공연제작 체험을 통한 미적 교육 사례연구: 실러의 미적교육론적 분석.

-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4: 169-184.
- 이정화, 이한주(2013). 고등학생들의 사회, 정서 학습을 위한 표현활동 무용수업 적용 및 개선 방안.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3): 91-116.
- 임도빈(2009).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 연구』, 15(1): 155-188.
- 장지혜, 조기숙(2012). 「오딜」을 재해석한 무용작품 「나에게 스며들다」의 창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7: 125-149.
- 정이와, 조기숙(2012). 무용작품 「매듭처럼 맺히는 외침」에서의 몰입체험에 관한 몸학적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5: 105-121.
- 조영주, 정유영(2011). 무용몰입의 방해 및 촉진 요인. 『무용예술학연구』, 33: 135-152.
- 조용환(1999a).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1): 91-121.
- _____ (1999b).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27-63.
- 조정희, 조기숙(2012). 춤추는 몸의 인식에 관한 탐구-무용작품의 체험분석을 통하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4: 149-172.
- Birringer, Johannes (2013). Choreographic and Performance Systems.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4): 181-206.
- Defrantz, Thomas F. (2011). Theorizing Connectivities: African American Women in Concert Dance.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6: 245-264.
- Hanstein, Penelope (2012). Having Conversations With Others: Reflections on Dancemaking, Pedagogy, and the Art of Scholarly Inquiry.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3): 205-222.
- Hayes, Jill (2010). Movement, Making and Meaning.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3: 339-358.
- Jeong, Ok Hee (2010). The Babel of Dance Literacy: Reflections on the Heterogeneity of dance notations in mid-twentieth century North America. 『무용예술학연구』, 31: 137-161.
- _____ (2011a). A Historiography of Dance Film: Focusing on the Dynamics between Art, Academe, and Film in the Early 20th Century American Dance Field. 『무용예술학연구』, 32: 75-126.
- _____ (2011b). Critical Reconsideration of Dance Media Archives: The Case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s Jerome Robbins Dance Division. 『무용예술학연구』, 34: 215-256.
- _____ (2012a). Critical Reconsideration of Dance Media Archives II: The Case of the George Balanchine Foundation Video Archives. 『무용예술학연구』, 35: 123-164.
- _____ (2012b). Critical Reconsideration of the Discourse of Nonfictional Dance Media. 『무용예술학연구』, 38: 109-134.
- _____ (2013). The History of Dance Representation on TV in the United States. 『무용예술학연구』, 42: 117-142.
- Jung, JaeYong (2012). Developing Well-rounded Dance Teacher: Critical Thinking Attitudes in Dance Teacher Education.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5): 222-240.

- Kampe, Thomas (2011). Recreating Histories: Transdisciplinarity and Transcultural Perspectives on Performance Making.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7: 253-275.
- Kim, Hyunjung (2013a). Sociological Implications of Dances in Korean Tourism Advertisements.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2): 283-303.
- _____ (2013b). The Characteristics of Dance Criticisms in the 1990s in South Korea.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3): 169-188.
- Kim, KyungHee (2013). Facilitating the Integration of the LMA/BF in Teaching Ballet.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1): 176-193.
- Kim, SeYong (2012). The Importance of Creative Movement in Dance Education and the Resulting Implications for Dance Education Systems in Korea.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6): 41-55.
- Kim, Suein (2012). A Study Concerning Objective Writing Formalities and Alternative Narrative Styles in Dance Studies.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2): 17-38.
- Lin, Yatin(2013). Choreographiing Multiple Corporealities in the Sinophone World-A Comparative Study on the Works by Cloud Gate Dance Theatre of Taiwan, City Contemporary Dance Companay from Hong Kong, and Shen Wei Dance Arts in New York.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6): 292-303.
- Mdnor, Mohd Anis (2012). Dance as Culture: Appropriating Ethnochoreology on Dance Research in the Maritime-Malay Societies in Southeast Asia.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1): 281-297.
- Protopapa, Efrosini (2012). Research Through Collaborative Practice: Identifying the Principles of Performance in Umm...I...and uh...[revisited].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2): 247-265.
- Tome, Lester(2013). Envisioning a Cuban Ballet:-Afrocubanismo, Nationalism and Political Commentary in Alejo Carpentier and Amadeo Roldan's La rebambaramba (1928)-.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5): 157-182.
- Uchino, Tadashi (2013). What about Machines? Performing "J-type" Technology in Japan's Contemporary Performance Culture.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3): 189-206.
- Aceto, Melanie (2012). Developing the Dance Artist in Technique Class: The Alteration Task. *Journal of Dance Education*, 12(1): 14-20.
- Adams, Marianne, Karen Caldwell, Laurie Atkins, & Rebecca Quin(2013). Pilates and Mindfulness: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Dance Education*, 12(4): 123-130.
- Barr, Sherrie (2013). Learning to Learn: A Hidden Dimension within Community Dance Practic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3(4): 115-121.
- Bond, Karen E. (2010). Graduate Danc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1985-2010. *Journal of Dance Education*, 10(4): 122-135.
- Bowie, Rian & Christina Tsoules Soriano(2011). Poetic Steps: Fusing African American Poetry and Choreography in Classroom Practic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1(2): 45-52.

- Brenner, Emily Wilson (2011). Interacting in the Learning Community: “Build a Ballet”: A Cross-Disciplinary Collaborative Project for Students. *Journal of Dance Education*, 11(2): 39-44.
- Cerniglia, Ken & Aubrey Lynch II(2011). Embodying Animal, Racial, Theatrical, and Commercial Power in The Lion King. *Dance Research Journal*, 43(1): 3-9.
- Clayton, Michelle (2012). Touring History: Tortola Valencia Between Europe and the Americas. *Dance Research Journal*, 44(1): 29-49.
- Cooper, Betsy (2011). Embodied Writing: A Tool for Teaching and Learning Danc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1(2): 53-59.
- Englebright, Krissa & Meg Robson Mahoney(2012). Assessment in Elementary Dance Education. *Journal of Dance Education*, 12(3): 87-92.
- Harding, Mary (2013). Assessment in the High School Technique Class: Creating Thinking Dancers. *Journal of Dance Education*, 12(3): 93-98.
- Kahlich, Luke C. (2011). “Dancing Deans: Dance Educators Move into the Executive Ranks.” *Journal of Dance Education*, 11(3): 90-99.
- Kearns, Lauren W. (2010). Somatics in Action: How “I Feel Three-Dimensional and Real” Improves Dance Education and Training. *Journal of Dance Education*, 10(2): 35-40.
- Kieswetter, Vivia Kay (2012). “It Shows on Your Face”: The Gaze as a Transformative Force in a Presbyterian Liturgical Dance Troupe. *Dance Chronicle*, 35(3): 338-359.
- Kim, Na-ye (2013). Reevaluating the Aims of Modern Dance Training in Korea: Toward a Whole Dancer. *Journal of Dance Education*, 13(2): 46-55.
- Martin, Rosemary (2013). Pushing Boundaries: Reflections on Teaching and Learning Contemporary Dance in Amman. *Journal of Dance Education*, 13(2): 37-45.
- Mepheron, Elizabeth (2011). Vitalizing Dance Legacy Through the Use of Labanotation as a Staging Tool. *Journal of Dance Education*, 11(1): 15-21.
- Moffett, Ann-Thomas (2012). Higher Order Thinking in the Dance Studio. *Journal of Dance Education*, 12(1): 1-6.
- Morgan, Ilana (2011). Empowerment in This Dance? You Love This Dance?: Instructor and Student Together Onlin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1(4): 119-123.
- O'flynn, Gabrielle, Zoe Pryor & Tonia Gray(2013). Embodied Subjectivities: Nine Young Women Talking Danc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3(4): 130-138.
- Oliver, Wendy (2011). College and University Danc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 Descriptive Study. *Journal of Dance Education*, 11(1): 3-14.
- Preston-Dunlop, Valerie & Lesley-Anne Sayers(2011). Gained in Translation: Recreation as Creative Practice. *Dance Chronicle*, 34(1): 5-45.

- Reason, Matthew & Dee Reynolds(2010). Kinesthesia, Empathy, and Related Pleasures: An Inquiry into Audience Experiences of Watching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42(2): 49-75.
- Riak, Patricia (2011). Celebrations During a Traditional Wedding on the Island of Rhodes. *Dance Chronicle*, 34(3): 388-421.
- Satkunaratnam, Ahalya (2013). Staging War: Performing Bharata Natyam in Colombo, Sri Lanka. *Dance Research Journal*, 45(1): 81-108.
- Sims, Meredith & Heather Erwin(2012). A Set of Descriptive Case Studies of Four Dance Faculty Members' Pedagogical Practices. *Journal of Dance Education*, 12(4): 131-140.
- Stinson, Susan W. (2010). Questioning Our Past and Building a Future: Teacher Education in Dance for 21Century. *Journal of Dance Education*, 10(4): 136-144.
- Streets, Barbara Faye (2011). Deepening Multicultural Competencies through Immersion in West African Dance Camps. *Journal of Dance Education*, 11(3): 73-83.

논문투고일 2014. 06. 15

심사일 2014. 06. 21

심사완료일 2014. 07. 07

Abstract

The Trends of Qualitative Research and Academic Writing in Korean and American Dance Journals I and This Researcher

Kim, Sue In

Lecturer, Sungkyunkwan Univ.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qualitative research and academic writing from articles in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Dance Research Journal of Korea*, *Korea Journal of Dance Documentation*, *Research of Dance Education*, *Dance Research Journal (DRJ)*, *Dance Chronicle: Studies of Dance and Related Arts (DC)*, *Journal of Dance Education (JODE)* from 2009 to 2013. Of 873 research articles, 70 qualitative studies articulate research methods, data collection methods, data analysis methods, reflection on research process, methods of validation, and methods of ethical issue treatment. In addition, I examine the academic writing styles, focusing on research title, expressions referring to the researcher(s), and reflections on researchers themselves. The analysis of qualitative study methods suggests that Korean and American dance scholarships are more or less similar. The analysis of academic writing styles suggests that American dance scholarship shows relatively higher percentage of qualitative writing characteristics in the all three areas.

Keywords: qualitative research(질적 연구), academic writing(학문적 글쓰기), qualitative writing(질적 글쓰기), Korean dance scholarship(한국 무용학계), American dance scholarship(미국 무용학계)